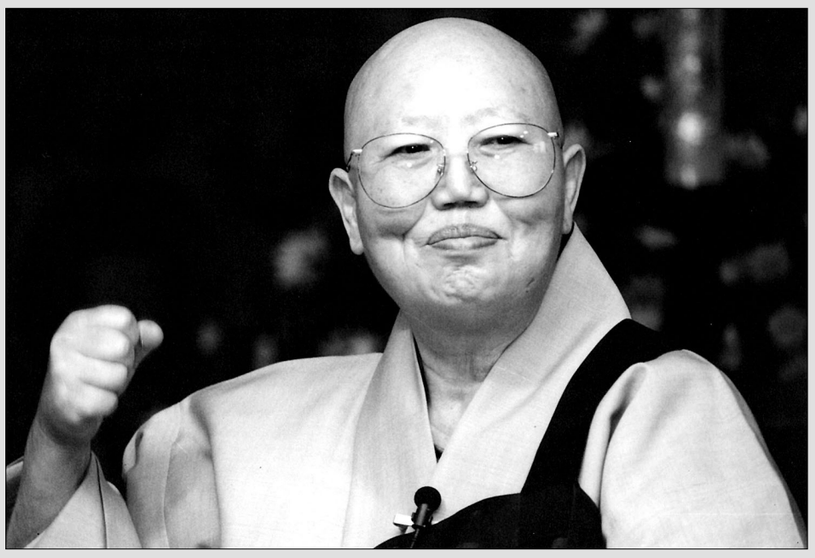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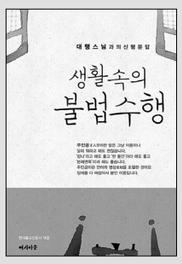
“주인공 관법으로 근본 뿌리 ‘불성’ 밝혀라”





생활속의 불법수행

현대불교신문 엮음
여시아문 펴냄 | 1만 5500원

지난 2012년 원적에 든 한마음선원장 대행 큰 스님은 평소 이같은 생활법문을 많이 하셨다. 이 주옥같은 법문들은 삶의 위기때마다 불자들에게 감로수와 같은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해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불법을 보다 알기 쉽게 전달하고 이를 생활의 법으로 만들려는 대행 스님의 큰 뜻은 현대불교신문 창간으로 이어지며 지금도 유지가 받들어 지고 있다. 〈생활 속의 불법 수행〉은 현대불교신문 창간호서부터 제143호까지 신문 지상에 인기리에 연재된 ‘길을 묻는 이에게’ 를 주제별로 정리해 묶은 故 대행 큰 스님(한마음선원장)과의 신행 및 수행 문답집이다. 총 380여개의 항목이 질의와 응답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이 책의 실제적 저자인 대행 큰스님은 ‘대행(大行)’ 이란 법호가 웅변하듯이 ‘우리 시대의 보현보살’ 로 일컬어지며 한국불교의 현대화, 세계화, 생활화에 지대한 공적을 남긴 조계종의 대표적인 비구니 선지식(善知識)이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2010년에는 조계종 포교대상 종정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책은 우리들의 일상서 벌어지는 갖가지 일들과 수없이 생겨났다 없어지는 고통스런 의문들을 대행 큰스님께 묻고, 그에 대한 스님의 선(禪)적인 답변을 실어놓았다. 그래서 이 책은 학식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어느 누가 읽어도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생활 참선 지침서이다.

책 속에는 대행 스님이 평소 강조했던 ‘주인공 관법(主人空 觀法)’ 에 대한 설명도 나온다. 스님은 “좋은 일, 나쁜 일, 어렵고 힘든 일, 아프고 괴로운 일 등 일체를 주인공에 놓으십시오. 주인공은 무엇이며 놓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주인공은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가지와 잎이 무성하게 자라 꽃피우듯이 사람이 생겨나게 된 근본 마음, 즉 부처가 될 수 있는 근본 성품을 불교에서는 불성이라고도 하고 주인공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 나무가 뿌리를 믿고 자라듯이 일체를 자기의 근본인 주인공 자리에서 다한다고 믿고 생활 속에서 다가오는 모든 것을 다시 그 자리에 놓는 것이 바로 주인공 관법입니다.”라고 말한다.

대행 큰스님은 이 책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항상 지켜보면서 좋은 일은 감사하게 놓고, 좋지 않은 일은 원만히 돌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돌려서 놓는 생활 속의 주인공 관법으로 자기의 근본 뿌리인 불성을 밝히고, 나와 남이 다 이롭게 되는 공생의 길을 갈 수 있음을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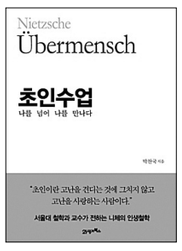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독자들은 이 법어집을 통해 일상의 소소한 행복은 물론, 삶과 죽음의 수레바퀴에서 해탈하는 대자유와 영원한 행복을 향한 큰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Q: 열심히 사는데 인생은 왜 이리 고단할까?
A: 고통 없길 바라지 말고 오히려 맞서라

초인수업

박찬국 지음 | 21세기북스 펴냄 | 1만5천원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한 때는 이에 대한 답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려는 ‘힐링’ 서가 유행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위안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만약 인생 자체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던 19세기 철학자 니체에게 인생의 고

민을 물어본다면 니체는 어떤 말을 해줄까?

니체가 살던 19세기는 종교적 세계관이 무너지고 전통 형이상학이 흔들리기 시작한 시대였다.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인생 자체는 허무하고 무의미한 것이라고 여기며 좌절했다. 하지만 니체는 이러한 근대적 경향에 온몸으로 저항하며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채찍질을 했다. 그것이 허무주의와 니힐리즘에 빠진 사회를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삶의 벽에 부딪혔을 때 니체에게 묻고 싶은 10가지
가치, 행복, 욕망, 운명, 경쟁, 종교 등 명쾌한 해설

이때 니체는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 “위험하게 살아라” “너의 운명이 평탄하기를 바라지 말고 가혹하기를 바라라”라고 외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고 말한다. 위로와 동정을 바라는 연약한 정신이 아니라 자신의 고양과 강화를 위해 고통과 험난한 운명을 요구하는 ‘초인(超人)’ 의 정신을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다.

이번에 출간된 〈초인수업〉은 우리가 살면서 던질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10가지 질문과 이에 대한 니체의 대답으로 구성돼 있다. 저자인 서울대 철학과 박찬국 교수는 수십 년간의 연구와 강의 활동을 바탕으로 이 책에서 니체 철학의 정수를 엿볼 수 있는 인생론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풀어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라고 푸념하는 우리에게 니체는 “안락한 삶을 경멸하라”고 이야기하고, “인생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라고 고민하는 우리에게 “인생의 의미에 대한 질문은 그런 물음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여야만 해결 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우리가 남의 시선에 신경을 쓰고 남의 평가에 민감한 것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노예근성 때문이라고 니체는 충고한다. 남의 시선과 평가에 연연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노예의 지위로 하락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니체가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일까? 니체는 삶의 의미와 방향을 잃어버린 시대에 초인의 이상이 들어서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필요한 일을 견디며 나아갈 뿐 아니라 그 고난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자신의 약점이나 자신이 겪은 고통과 고난까지도 자기발전의 계기로 승화시킬 줄 아는 사람이다.

우리는 흔히 고통이 없는 편안한 상태를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니체는 자신이 고양되고 강화되었다는 느낌이 행복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복한 인간은 고난과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 않고 그런 것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평정과 충일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인 것이다.

도처에서 살벌한 경쟁이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변혁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뇌하는 사람이라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니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김주일 기자

새로나온책

히말라야를 넘어 자유를 찾아

닉 그레이 등 지음 | 박미낭 옮김 | 파라주니어 펴냄 | 9800원

이 책은 텐진이 형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높은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자유를 찾아 떠나는 과정을 그린 실화 소설이다. 티베트서 인도 다람살라에 있는 티베트 임시정부를 찾아가는 길은 11살의 텐진에게도, 19살의 형에게도 목숨을 건 모험이다. 하지만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티베트에서는 누릴 수 없는 자유와 새로운 삶이 히말라야 너머에 있기 때이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낯설지만 가까운 티베트에 대해 알게 되고, 가족에 대한 사랑과 진정한 용기, 그리고 세계평화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원각경요해

세웅스님 역저 | 관음출판사 펴냄 | 3만3천원

구경성불 깨달음 과정과 지혜점검, 대승, 일승, 불승 보살과 불지(佛智)의 깨달음 각성세계를 밝혀, 구경성불의 밀밀한 수행과 점검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반야경 법화경 화엄경의 차별각성을 드러내어, 대승, 일승, 불승의 각성지혜의 관계성을 밝힘으로, 구경수행관점에서 경에 대한 안목을 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깨달았어도 구경 불지혜를 향함에는 깨달음 경계도 또한, 타파해 벗어나야 하는, 각성지혜세계를 자상히 밝혔다. 원문을 수록해 아침 저녁으로 기도 신행의 교본으로 사용할 수 있게 구성돼 있다.

관세음보살이 되는 천수경

양지 역저 | 맑은소리 맑은 나라 펴냄 | 1만5천원

‘천수경’ 은 이름에서 보듯이 ‘천수경’ 은 관세음보살의 사상을 담고 있다. 관세음보살은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관세음보살은 자비심으로 중생을 어루만져 주시고, 감싸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천 개의 손과 눈이 필요한 것이다. 어찌 천개의 손과 눈뿐일까? 천만억의 손과 눈으로도 부족할 것이다. 즉 천 개의 손과 눈이란 관세음보살의 무한한 자비심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천수경’ 공부는 교리적인 면보다 관세음보살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는 시간이 될 것 같다.

그 또한 축복이어라

한계주 지음 | 에세이문학 펴냄 | 1만3천원

저자는 수필가이자 시인이다. 이미 여러 권의 수필집과 시집을 상재했다. 이번 책에는 최근에 쓴 수필과 평론, 기행수필 등을 수록했다. 팔순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날카로운 비평과 저자의 농밀한 어휘력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인간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함께 저자의 작품 세계를 일관되게 흐르는 것은 불교적 사유이다. 불가에서 인생은 깨어나야 할 환(幻)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불교 철학은 그의 문학 귀착점이다.”는 평론가의 말이 아니라도 저자의 글들은 ‘한 자루의 붓이 윤회의 수레바퀴를 대신해주기를 간절히 염원’ 하고 있다.

도올만화 논어4

도올 역주 | 통나무 펴냄 | 1만 2900원

총 5권으로 〈만화논어〉의 완성을 목표로 진행되는 〈도올 만화논어〉 제 4권이 출간됐다.

〈도올 만화논어〉는 〈논어〉 499장 전체를 한 구절도 빠짐없이 만화 책 5권으로 쉽게 풀어내고 있다. 화사한 파스텔톤의 예쁜 그림과 격조 있는 위트가 돋보이는 만화에 한문의 원문이 한글독음과 함께 모두 실려 있고, 낱낱이 번역됐다. 4권에서는 〈논어〉 20개 편 중 다섯 편인 술이, 태백, 자한, 향당, 선진편이 실려 있다.

이 책의 탁월성은 〈논어〉에 대한 역대 중요한 주석을 모두 망라해 21세기 현대에 가장 알맞게 풀이했다는 점이다.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가격
비 취 목 걸 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 – 상(연옥) 가액 ₩80,000원
비취팔찌 – 중(흰옥) 가액 ₩6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2set 이상 주문시 배송비 무료)

햄프오일비누
1개 10,000원